

경제

공장 가동률 100%·해외수주 물량 3개월치 확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청신호

제품가격 인상·매출 급등 ... 각종 경제지표 호전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의 공장 가동률과 해외 수주 등 각종 경영지표가 호전돼, 경영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타이어 업계의 주요 경영 지표인 가격 변동 추이와 공장 가동률, 해외 수주, 적정 재고 수준 유지 등에서 금호타이어의 최근 지표는 지난해 파업 휴업중에서 벗어나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파업 당시 50% 수준이던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10월이후 최근까지 100% 풀가동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북미와 유럽, 신시장 등에서 영업활동이 개선돼 해외수주가 늘어 3개월 판매량에 해당하는 1천500만개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또 그동안 지난해 5월 1천400만개에 이르던 글로벌 재고도 최근 900만

개 이하로 낮아져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품 가격 인상으로 매출액도 올랐다. 올해 초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맞춰 북미 수출용 등 제품군별로 5~8%가량 가격이 인상돼 매출액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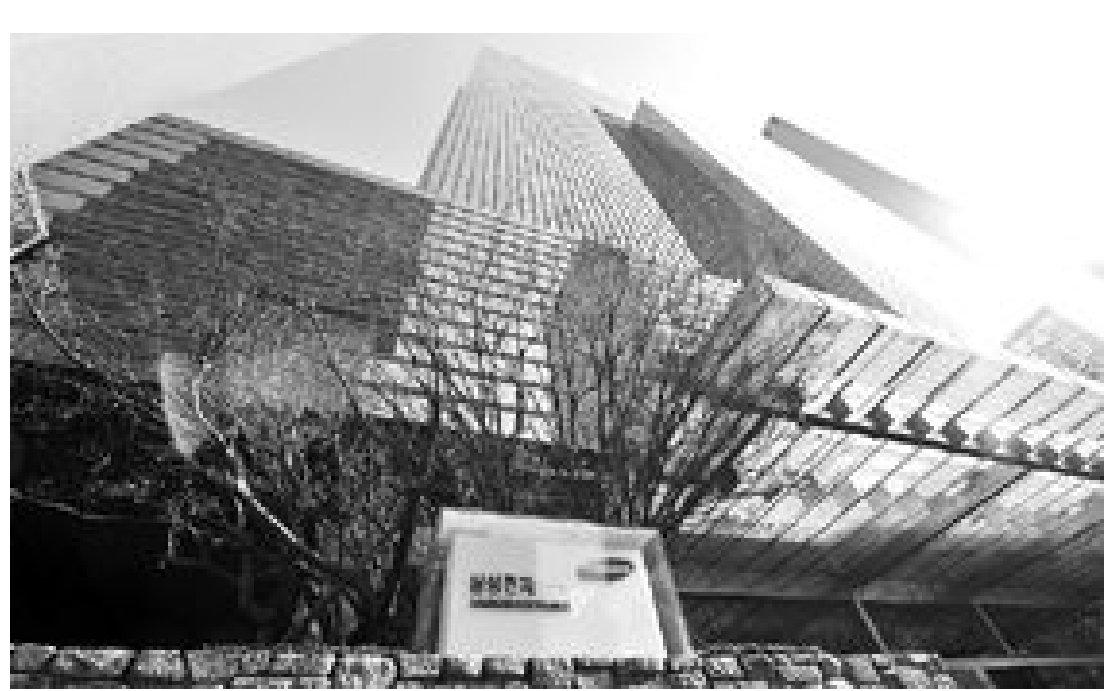
여기에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해 제품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쟁사에 비해 취약한 생산성과 높은 노무비에 따른 제조원가의

문제점도 워크아웃 개시와 함께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인 원가구조 조정작업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영지표 호전으로 올해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턴어라운드(기업회생)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져 유동성 문제가 해결됐고, 여기에 자구 노력이 더해진다면 재무구조는 현격히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전자가 창립 40년 만에 연간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동시에 달성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전경. /\*연합뉴스

삼성전자 '100兆-10兆' 클럽

작년 매출 136조500억, 영업익 10조9천억

삼성전자가 창립 40년 만에 연간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7일 공개된 지난해 4분기의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12월 매출액 39조원에 3조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총 136조500억원의 매출과 10조9천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매출 100조원에 영업이익 10조원'을 동시에 돌파했다.

지난해 11월1일 창립 4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2004년에 영업이익 11조7천600억원을 올려 '영업이익 10조 원 벽'을 깬 뒤, 당시 연간 매출이 81조9천600억원이었다. 2008년에는 연간 매출에서 121조2천9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그해의 영업이익은 6조300억원에 그쳤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2008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비정상경영체제로 지난해를 시작했다.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8년 4분기에 7천4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우리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짓눌렸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금호산업 주가도 '반등'

워크아웃 개시 ... 유동성 위험 해소 기대

사흘연속 하한가 탈출 어제 3.63% 올라

다.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1.94%), 금호석유(1.82%), 대한통운(0.35%) 등 다른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금호그룹주의 이러한 동반 강세는 전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유동성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금호그룹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추진되면서 최악의 유동성 위기는 피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할 때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실제 이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주식이 가장 많이 거래된 창구는 전날에 이어 개인이 주로 매매하는 키움증권으로 확인돼 개별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에게 금호 관련주의 '이상금'을 '경계신호'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S 투자사 관계자는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발원의 회생계획 강제 인가 등이 재료가 돼 투기적 거래량이 일었지만, 결국 회사측이 감자를 결정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금호 협력업체 지원 나서

오늘부터 상환기일 연장·유동성 공급

광주은행이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협력업체 지원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7일 "지역 내 금호 협력업체에 대해 상환기일 연장, 분할 상환 유예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주 사업장이 광주·전남 지역에 있고 광주은행을 주 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기

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 이내인 협력업체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 Fast-Track(일시적 유동성 지원)'이 우선 적용돼 상환기일 연장 및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이들 관련 기업이 발행한 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부도 반환된 할인어음에 대해서도 최고 20억원 한도 안에서 0.5%포인트를 금리 우대해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소 R&D 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중소기업 조세 지원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LED(발광다이오드) 응용이나 그린수송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분야가 '30% 세액 공제' 대상이다.

이들 분야 외의 연구개발 투자비에는 종전처럼 기본 공제율인 25%가 적용된다.

또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가 확대돼 인력공급업, 고음질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은 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한우 한마리 573만원 '사상 최고'

한우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산지가 격이 사상 최고치인 573만원(600kg 수컷 한 마리 기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09년 4분기 가축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수컷(600kg 기준)의 월 평균 산지가 격은 지난해 11월 573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는 2001년 11월의 554만2천원이었다. 수입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지면서 한우·육우(고기용)를 얻기 위해 살 쫓은 쫓소) 등의 소비 수요가 높아진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우·육우의 사육 마릿수는 4분기 263만5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6천마리(0.2%) 줄었다. 가을·겨울철에는 송아지 출산이 적은 계절적 특성 탓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돼지는 958만5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20만4천마리(2.2%) 늘면서 2007년 하반기 이후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아졌다. 돼지고기의 꾸준한 가격 호조, 사료가격 안정 등을 통계청은 원인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683.45 (-21.87) 코스닥지수 535.52 (-3.60) 금리(국고채 3년) 4.32% (-0.11) 원·달러 환율 1,135.40원 (-1.00)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수원지구 롯데마트앞 펠리스타워빌딩 임대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프용품, 유아용품,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공장급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대지: 13,200㎡ (약 4,000평) 건물: 6,600㎡ (약 2,000평)